

재미한국학교협의회, 이승민 신임회장 선출

기독일보 윤수영 atldaily@gmail.com

입력 Jul 19, 2016 01:37 PM PDT

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'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(포토 : 기독일보)

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'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(포토 : 기독일보)

재미한국학교협의회(총회장 최미영,NAKS) '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'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.

학술대회에 앞선 13,14 일에는 한국학교 운영자 사례 발표와 워크숍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원 양성 집중연수가 진행되기도 했으며 차세대 미래 교육을 위해 미국 14 개 지역협의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500 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.

Like Us on Facebook

'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'이라는 주제로 열린 NAKS 의 제 34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의 전체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수, 학습 활동, 역사,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.

또한 '제 12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', '제 6 회 <백범일지>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', '제 2 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 대회', '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', '한국문화체험관' 등도 개최됐다.

특히 애틀랜타 한국학교 송미령 교장은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상을 표창 받았으며 선우인호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회장이 25 년 근속교사상을 수여 받았다.

또, 애틀랜타 한국학교 안은영 교사는 "한국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문법 연습 활동"라는 주제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.

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워싱턴지역협의회 이승민씨가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동중부지역협의회 오정선미 씨, 북가주지역협의회 장은영 씨가 선출됐다.

한편 NAKS 가 주최하는 차기 대회는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소재한 메리엇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.